

주방을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가전업계, 빌트인 사업 박차

LG 류재철 CEO 선임 등 조직 개편
북미·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

삼성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군 선포

국내 가전 업체들이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업 간거래(B2B) 영역에서 빌트인 가전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방 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생활공간으로 구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글로벌 빌트인 주방 가전 시장 규모를 올해 기준 645억달러(한화 약 93조원)로 추산했다. 이중 유럽 빌트인 시장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띠고 있다. 주거 공간을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 선호가 확산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빌트인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싱크대 걸레받이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 빌트인형 ‘히든 스테이션’의 모습. /LG전자

이에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시장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인사를 통해 생활가전 사업을 이끈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이에 LG전자의 빌트인 가전 등 B2B 사업 공략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지난해 4월 향후 3년 내 빌

트인 사업의 매출을 조 단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빌트인 가전 사업이 매출 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LG전자는 최근 조직 효율화를 단행하며 빌트인과 빌더 중심인 가전 B2B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B2B 해외영업담당을 신설하고 HS사



‘인피니트 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 /삼성전자

업본부 산하 빌트인·쿠싱사업담당은 사업부 체제로 조직을 격상해 운영한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SKS’로 새롭게 단장하고 북미와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재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이탈리아 밀라노 등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제품을 넘어 주방 공간 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위한 가전 설

루션을 제안하는 점도 특징이다. 테이블 하부에 설치된 히든 인덕션과 일체형 후드를 적용한 아일랜드 시스템 형태의 콘센트 제품 등을 통해 주방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가전 제품군인 ‘인피니트 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흡입하는 팬과 필터가 인덕션에 내장됐다. 인덕션 덕트를 통해 냄새와 연기가 배출되거나 필터를 거쳐 걸러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은 주거·상업 인테리어 문화가 발달돼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의 핵심 전략지로 여겨진다”라며 “그간 우리 기업들은 현지 기업에 밀려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디자인 완성도, 에너지 효율 등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中, 글로벌 ESS 시장 양분… 정책 vs 저가

韓, 북미에서 대형수주 잇달아
中, 태양광 등 유럽시장 본격 진출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북미에서 대형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위를 다져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IRA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를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ESS 시장을 적극 공략중이다. 삼성SDI는 최근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과 2조원대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7년부터 3년간 물량을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 테슬라와 약 6조원 규모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온은 지난 9월 플랫아이언과 1G

Wh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대 7.2GWh까지 확대 가능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북미 현지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보다 대중 핀셋 규제가 느슨한 유럽 시장에 전력질주는 상황이다. 유럽은 ESS 누적 설치 용량이 연내 100G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배터리 기업 EVE는 지난달 27일 스웨덴 ESS 통합업체 Vimab BESS AB와 3년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북유럽 지역에서 1.48GWh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EVE는 Vimab BESS의 핵심 공급업체로 참여해 고성능 저장용 배터리와 시스템 솔루션,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첫 주문 물량은 12월 납품이 확정됐다.

중국 ESS 기업 RelyEZ도 기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에서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RelyEZ

는 프로젝트 설계부터 장비 공급, 시운전 및 계통 연계, 장기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폴란드 시장에 특화된 ‘VentureEdge 800 ES S’를 앞세우고 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유럽 ESS 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업체 트리나솔라 산하 트리나스토리지는 최근 그리스 PPC 재생에너지와 그리스 서마케도니아에서 50MW/200MWh 규모 ES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국 대표 태양광 기업인 진코솔라의 자회사 진코ESS도 슬로베니아에서 15MWh 규모의 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1분기 중 납품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노리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북미에서 확실한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럽 재공략을 위한 동력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북미 ESS 중심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오로라2,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 개발”

인터뷰

사드 엘페니
르노코리아 SW 팀장

엘페니 팀장, 오로라2 전략 설명
“BPA·LLM 기반 멀티미디어 적용”

“오로라1의 그랑 콜레오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로라2는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 성수 전시장에서 만난 사드 엘페니 르노코리아 소프트웨어 담당 팀장은 기존 오로라 1의 개발 상황과 함께 내년 선보일 오로라2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엘페니 팀장은 르노코리아 입사 초기 차량 내 부품 매니지먼트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오로라1의 차량용 앱과 차량 내 브라우저 콘셉트 개발을 진행했다.

엘페니 팀장은 “지나해부터 차량용 소프트웨어 앱 개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랑 콜레오스는 차량 내 브라우저 컨셉 개발에 관여하며 유튜브, 게임 등 구현 가능한 기능을 시도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르노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 팀장 엘페니 사드 팀장.

“팀원이 대부분 20대로 젊고 열정적이다. 신기술과 AI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며 “덕분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문제점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가 내년 선보일 오로라2의 핵심은 AI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페니 팀장은 “오로라2에 적용될 AI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멀티미디어는 대부분 비즈니스프로세스자동화(BPA)와 거대언어모델(LLM) 분야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서울대, AI 보안기술 연구·개발 맞손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 MOU

LG전자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AI 보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 산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서울대학교의 세계적 연구 인력과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AI 보안 핵심 기술 확보부터 안전한 AI 서비스 구현까지 다양한 산학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신설 연구센터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에이전트 보안 강화 기술,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 등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한다.

초대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인 홍용택 교수가 맡는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펠로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2025년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한 과학기술계 리더다.

/차현정 기자



(왼쪽부터)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주환 교수,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이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만나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G전자

삼성, ‘스마트싱스’ 에너지 절감효과 입증

AI 절약모드로 에너지 사용량 30% ↓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 기능을 통해 삼성전자의 고효율 세탁기 에너지 사용량이 약 30% 절감되는 것을 실증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탄소 검증 기관 ‘카본 트러스트’와 이번 ‘AI 절약모드’ 에너지 절감 효과 검증을 위해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126개 국가에서 실사용 중인 약 18만 7000대의 삼성전자 고효율 세탁기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측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AI 절약모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 수준인 약 5.02GWh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을 확인했다. 절감된 5.02GWh는 서울시의 1만4000가구가 여름 철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양이다.

/차현정 기자